



올해 주제로 선정된 책들. 왼쪽부터 이종목 서울대 국문과 교수의 '우리 한시를 읽다', 전보삼 만해기념관 관장의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목수 이상현의 '즐거움 한옥 읽기, 즐거운 한옥 짓기', 곤충학박사 정부희의 '곤충의 법상', 박대현 호산방 대표의 '고서이야기', 장현갑 한국명성치유학회 명예회장의 '붓다브레인', 허달 한국고청센터 리더코치의 '마중물의 힘'.

글로 못한 얘기 만나서 채운다

저자와 만나 평화·한시·한옥·곤충·고서·뇌과학 토론

불교진흥원 화요일연강좌

바쁜 직장인들에 인기...매월 1회

10월 19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열린 강좌가 펼쳐졌다.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에게서 피곤한 모습 따윈 찾아 볼 수 없다.

지적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는 문화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 강좌는 특정 대상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더 인기가 있다.

불교계에서도 이런 다양한 문화적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돼 있다. 불교진흥원은 매월 1회 책 한권을 정해 책의 저자와 직접 만나는 '화요일 연강좌'를 열고 있다.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저녁 7-9시. 이 강좌는 불자뿐만 아니라 인문학, 동양학 등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이 책의 저자와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바쁜 직장인들도 업무가 끝난 후, 부담 없이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강좌의 매력이다.

2009년부터 매달 실시해 온 '화요일 연강좌'는

지금까지 28개의 강좌가 진행됐다. 연인원 1500여 명이 이 강좌에 참여했다. 주제와 책은 주로 현재의 삶을 담은 내용이나, 시대의 거울이 될 수 있는 책들로 선정한다. 강좌는 저자의 강연을 듣고 독자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저자가 책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책에 못다 한 이야기, 책과 연관된 주제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알려준다. 강의 말미에는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한다.

불교진흥원 공익사업팀 고영인 차장은 "불교계에서 첫 시도하는 강좌나 만큼 처음에는 부담도 많았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의외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인씨는 "인문학 강좌이기 때문에 불교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용적으로는 불교정신을 함양하고 있는 테마를 선정해 강좌를 열고 있다"며 "주

로 심리학, 생태, 철학 등 인문학 전반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마 선정은 흐름이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찾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좌에는 내용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로 40-5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참석하고 있다. 처음부터 소규모 강좌로 시작해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평균 50-60명 정도의 인원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상태다.

인터넷을 보고 강좌에 처음 참석한 직장인 임주민씨는 "직장인들이 시간 내기 좋은 저녁시간에 강좌를 진행 하니 좋다"며 "책을 읽어보고 오진 않았지만, 저자가 짧은 시간 안에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직접 설명해 주니 좋다. 앞으로 계속 참여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화요일 연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대신 3천원의 보시를 받고 있다. 보시는 연말에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02)719-2606 이은정 기자

문화 단신

'100일간의 승무이야기' 막바지 가을공연 한창

'100일간의 승무이야기'가 봄, 여름에 이어 100일을 마무리 지을 가을 공연을 시작했다. 11월 21일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짧은 기간만 진행하던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관심을 깨트리 관객들과 새롭게 만나기 위해 마련된 공연이다.



'100일간의 승무이야기'는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만큼 춤꾼의 손동작 하나 하나, 악사들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공연이다. 이번 가을 공연도 첫 공연을 그려냈듯, 마지막 공연 또한 조계사 대웅전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02)747-5035

선진 스님 '점심' 개인전



'퐁단지'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설치미술을 선보여 왔던 선진 스님이 11월 2-7일 대구동구문화체육관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9점의 설치미술품이 전시되며, '점심(點心)'이란 주제로 일심(一心)과 비움, 연민을 말한다.

선진 스님은 "간화선을 조형언어로 표현해, 오락악세(五濁惡世)에 신음하는 현세의 우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일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성찰과 참구(參究)로 비움과 연민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053)767-0274

광주박물관, 어린이 문화재 그림대회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11월 1일 개최한다.

그리기 대회는 광주·전남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40명이 참가할 수 있다. 수상작은 시상식 당일인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 전시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우리 문화재를 오랜 시간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문화재그리기 대회를 통해 우리 역사와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062-570-7000 양행선 광주주전담지사장

지금 아니면 다시 볼 수 없는 '수월관음도'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불화대전' 11월 21일까지

은은한 녹색 물방울 모양의 광배 안에 한 손을 들어 버들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는 우아하고 늘씬한 관음보살. 일명 '물방울 관음'이라고도 불리는 센소지 소장 '수월관음도'가 700년 만에 고향을 찾았다.

일본에서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수월관음도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 '고려불화대전-700년 만의 해후'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11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국내에 소장된 고려불화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고려불화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108점이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에는 일본 소재 고려불화 27점, 미국·유럽 소재 고려불화 15점, 국내

소재 고려불화 19점 등과 더불어 중국 및 일본 불화 20점, 고려불화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 불화 5점, 고려시대 불상과 공예품 22점이 전시된다.

특히 센소지 소장 '수월관음도'를 비롯해 네즈미술관 소장 '지장보살도', 오테카지 소장 '과경16관변상도' 등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이 상당수 전시돼 눈길을 끈다.

전시는 고려불화 중에서도 부처를 주존으로 그린 '깨달음의 존재, 부처', 불교신도들에게 친근한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을 주제로 한 '중생의 구제자, 보살', 고려 1235-6년에 그려진 오백나한도의 연작 '수행자의 모습, 나한', 고려불화와 같은 시기에 그려진 중국과 일본의 불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이웃나라의 불보살'로 구성돼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배영일 학예연구사는 "고려불화는 워낙 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여러 점을 소장한 경우가 드물다"며 "이번 전시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44개 처에 달하는 국내·외 소장처와 협의해 특별전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의 주요 출품 기관은 삼성미술관 리움, 일본의 동경국립박물관, 나라국립박물관, 규슈국립박물관을 비롯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보스턴미술관, 프랑스의 기메박물관, 독일의 베를린동아시아박물관과 쾰른동아시아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박물관 등이다.

배 연구사는 "고려불화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예술품으로 손꼽힌다"며 "섬세하고 단아한 형태, 원색을 주제로 한 화려한 색채화 호화로운 금니, 흐르는 듯 유려하면서도 힘 있는 선묘 등 당시 고려는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미의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고려불교의 정신과 고려인들의 숨결을 함축한 고려시대의 문화상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평생 다시 만나기 어려운 뜻 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수월관음도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뵈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집안동토탈 알아내는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법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귀신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비법

百超律歷學堂

입금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02) 3667-4446
계좌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010-3813-4443

베스트 셀러 진입

황금의 불탑 미얀마!!!

미얀마를 알고 계십니까?
걱정 마세요., 미얀마 성지순례는 안전합니다.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490,000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베트]